

**지난** 5월에 콜롬비아 마약밀매업자들이 1기당 8천6백만원(12만불)에 달하는 Stinger 유도탄 6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밝혀졌다. 이 유도탄으로 마약업자들은 불법적인 마약생산과 배급을 척결하기 위한 콜롬비아 마약전쟁에서 저공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마약퇴치 지원을 증대시키는 정당성을 제공받게 되었다.

### 마약전쟁과 다른 사건들

현재 美 육군의 그린베레(Green Berets) 특공대는 페루에서 마약퇴치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美 마약요원들은 콜롬비아, 쿠아테말라, 멕시코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게다가 美 해군과 해안경찰대 함정들은 플로리다 남쪽해상과 텍사스 해안을 경비하고 있고, 육군은 세관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순찰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등 마약퇴치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1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레이더 장착 헬륨기구가 있는 18대의 경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15 전투기와 AWACS 조기경보기기를 보유한 軍은 8백파운드까지의 코카인을 싣고 저공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남부 국경선을 따라 대공방어를 하기를 원한다.

현재 GE사와 Westinghouse사의 경항공기 12대가 완성되었지만, 유지비용은 거의 지상장비(개당 1백40억원)의 3분의1 정도가 소요된다. 경항공기에 있는 레이더는 1백50마일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마약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는 EC-130기로 알려진 C-130기 변형기로, 이 항공기에는 1만9천피트의 고도에서도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한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Blackhawk 헬기 역시 마약전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Sincgars 무전기과 디지털/무선 통신장비 등 많은 장비가 이용되고 있다.

이런 모든 장비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군의 마약전쟁 예산이 '89년 2천1백50억원(3억불)에서 '90년 3천2백20억원(4억5천만불)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91년도에는 약 6천1백50억원(9억불) 정도로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더구나 美 의회는 마약퇴치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으로 1년에 1천70억원을 책정하였다. 마약퇴치 연구개발에 대한 우선권은 첩보위성, 코카인을 탐지할 수 있는 저공비행의 센서, 반사전파 레이더의 강화, 많은 도청(청음)장비와 송신기 등이다.

이런 모든 것이 군에 유리한 것 같지만, 미군이 민간 마약퇴치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소리도 있다.

몇몇 고위관리들은 긴축시기에 마약퇴치 기술에 대한 예산이 전투장비에 산으로 책정된 것에서 전용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많은 국가에서 마약과 정치가 뒤엉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實例로 페루에서 Shining Path('70년대에 생긴 극단적인 폭력세력으로 때때로 마약밀매자와 연합세력을 형성함) 게릴라는 상당한 코카인 농장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세력과 대항하는 페루정부에 대한 지원은 페루의 정치에 관여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어떤 마약 단속요원은 악당들이 구입하려고 하며,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최신 기술장비에 대한 완전하고 새로운 암시장(暗市場)에 대한 가능성이 몇년간 미국과 선진국에서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개량형 AK-47과 다른 자동 소화기의 밀판매를 적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軍)은 수년내에 마약밀매의 실질적인 중단이 없어서, 이에 대해 군이 실패의 속죄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軍의 마약퇴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軍만이 마약단속만이 필요로 하는 정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약퇴치 임무는 군부대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Apache와 Blackhawk 헬기에 관해 살펴볼때, 만약 美 육군이 LH기를 소량 구매하고 V-22기의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Apache 헬기의 수명연장과 Blackhawk 헬기의 비행거리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 육군의 항공기 문제

예산문제와 美·蘇間 시각차의 완화가 있기 전 이런 문제들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되었다.

체니 국방장관과 의회가 육군의 항공기에 관한 논의를 끝내고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만들 것을 기다리면서 육군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사실상 몇달동안 LH계획은 논란이 있었다. 이 LH기는 1년전 2천대이상에서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1천2백92대나 1천6백81대로 줄어들 것이다. 물론 단위당 가격은 53억원에서 64억원으로 상승하였다.

V-22 Osprey에 대하여 언급하면, 이 항공기의 옹호자들은 현재의 페르시아만 위기는 쉽게 정찰/감시나 환자 수송, 특수작전 침투, 대잠기로 전환하는 V-22 중형 병력/화물 수송기의 효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ache와 Blackhawk 헬기에 관해 살펴볼때, 만약 육군이 LH기를 소량 구매하고 V-22기의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아마 Apache 헬기의 수명연장과 Blackhawk 헬기의 비행거리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여기에서 또하나의 장점은 동맹국 구매자들에게 이러한 요소는 매력적인 것이다.

### 미국과 유럽의 공동협력

美 공군이 외국산 항공기를 선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자국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탈리아의 Aerialia사와 미국의 협력업체인 Chrysler Technologies사는 미 공군 A-27부대와 G222 중형 STOL기 개조형 5대를 약 5백70억원에 계약하였다.

Aerialia사는 이탈리아 공군용으로 G222기를 제작하였다. 이 항공기는 울퉁불퉁한 1천8백피트의 활주로를 이륙할수 있으며 2만파운드의 화물과 32명의 공수병력, 혹은 44명의 중무장 인원, 혹은 36개의 의료용 침대나 몇대의 바퀴형차량을 수송할수 있는 2개의 터보프롭 엔진을 가진 항공기이다.

미 공군과 해병 및 해군이 Shorts사의 Sherpa 및 BAe사의 Harrier와 Goshawk의 구매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협력에 대한 더이상의 증가 추세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시기는 끝났다. (旭)

〈Miltech 90·10〉